

전국 규모 학력고사·대회 수상경력 높이 평가

■ 경시대회 참가

지난 2월7일과 21일 미국 수학경시대회(AMC 10/12)가 있었다. 수학을 잘하는 한인 학생들에게는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비중 있는 경시대회다.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학들에 지원할 경우 그렇지 못한 지원자들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력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9학년부터 11학년 학생들은 아직 지원서 제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각종 경시대회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제니 김 존스 합킨스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이에 대해 알아봤다.

■ 주요 대회 입상의 의미

전국 또는 국제적인 규모의 대회 참가와 수상경력은 최우수 학생들을 구별해 내고 서로 다른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을 비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보딩스쿨이나 대학 입학사정 때 대학 내부에서는 이름 있는 대회들의 서류를 매기고 그 서류에 따라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또한 일부 대학은 평판이 높은 경시대회 우승자를 스카우트하기도 한다.

PSAT를 통해 선발되는 내셔널 머릿장학금 파이널리스트를 우대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클라호마 대학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른 명문 대학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한다. MIT나 칼텍 같은 경우 과학에 관련된 경시대회, 즉 수학 또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분야 등의 세계 과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나 전국 과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들을 높이 인정한다. 또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지원자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데, MIT의 경우 MITES 리서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우대한다.

이밖에 인텔 과학 경연대회나 웨스팅하우스 우승자 및 결승 진출자들은 일부 명문대에서 많은 크레딧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매년 2월 중에 두 번 치러지는 AM-



각종 경시대회는 대학 입시에서 상당히 단단한 경쟁력을 가지게 만든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입상에만 매달리다 실패했을 경우 받게 되는 충격도 염두에 뒀다. 구글 사이언스 페어 참가 선수들. (뉴욕타임스)

MIT·칼텍 등 수학·과학분야 우승자 우대 인텔·웨스팅하우스 입상하면 명문대 크레딧

CI0A/B, 그리고 AMC12A/B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이는 수학적 재능을 보여주는 훌륭한 도전 기록이 된다.

예일의 추가 지원서에 보면 American Invitational Math Exam(AIME)과 AMC10/12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MIT역시 입학 지원서에 AMC와 AIME 점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칸이 있다. 예일대 입학 지원서에 현재 추가 AP(Advanced Placement) 점수들 또한 추가 지원서에 선택 작성난이 준비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 실시되는 Fermat 점수 등도 기록할 수 있다.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테스트도 세계적인 테스트에 속하므로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대학 입학사정 때 도움이 된다.

■ 주요 대회들

한인 학생들은 영어에 비해 수학이 더 우수하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상

당수는 엔지니어나 비즈니스, 의과 계통으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시대회와 리서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환경을 넘어선 무리한 진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1. 경시대회

- USA Mathematical Olympiad, USA Chemistry Olympiad, USA Physics Olympiad, USA Biology Olympiad, USA Computing Olympiad
- Siemens Competition in Science, Math, Technology winners
- Intel Science Talent Search (top 40 finalists & top 10 winners)
- Research Science Institute, Ojai and Socorro participants
- ARML (American Regions Mathematics League) winners
- Intel International Science & Engi-

neering Fair winners

- Junior Humanities and Science Symposium national winners
- 2. 리서치 프로그램

실제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인 수학 과학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다고 할 수 있는 명문 대학들이 선호하는 몇 개의 과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완전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된다.

-Summer Science Institutes(SSI) (www.summerscienceinstitute.org)

샌프란시스코 주립대(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에서 주관하며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우수한 과학도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8주 프로그램이다.

- The Summer Science Program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실시하는 5주 프로그램으로 70여명을 수용한다. 캘리포니아 샌타바바라의 웨스트몬트

칼리지(Westmont College), 소코로의 뉴멕시코 광산학 기술연구소(New Mexico Institute of Mining and Technology) 중 한 군데를 선택해서 지원하거나 두 군데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

11학년이 대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수학은 Pre-calculus 이상을 택하고 있어야 한다. 10학년의 경우라면, 8월 기준 17세 이상이거나 Calculus 이상을 듣고 있어야 한다.

우수한 성적이 필요하고 특히 수학과 과학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특별한 시험성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고, 성적표, 표준고사 성적, 2~3개의 선생님 추천서가 필요하다.

미국 거주 학생의 마감일은 2월28일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여학생과 소수민족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다. (http://www.summerscience.org)

- NASA-Sharp Program (www.nasasharp.com)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NASA 글렌 리서치 센터는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수학 그리고 테크니컬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8주 프로그램으로 고교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RSI: www.rsi.ai.org)

가장 잘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고등학교 11학년으로서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시행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CEE(Center for Excellence in Education)가 주관하고 있고,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최고의 대학으로 꼽는 최상의 환경과 연구시설을 자랑하는 곳인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에서 수업을 듣고 실험을 하게 된다.

- Governors Schools for the Sciences

각 주마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교 영재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이다. 만약 자녀가 과학에 관심이 있고 그 방면으로 진출하기를 원한다면 www.Sciserv.org (Society for Science & The Public)를 방문하여 무료 과학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된다.



“중학교 때부터 지역대회 참가 정보파악을”

제니 김 존스 합킨스대 입학사정관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지역 과학경시대회에 전시된 작품들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존스 합킨스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니 김씨(어드미션 매스터 컨설턴트)는 이를 위해 고교 때

는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실제 자신의 눈높이와 실력을 높이고, 경시대회를 목표로 과학실험에 직접 참여하거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문 과학실험실에서 여름방학 동안 프로젝트를 만들며 꾸준히 기록 노트를 만들고, 기

사형식의 과학 저널들을 작성해 놓을 것과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포스터 보드를 계획해 놓으면, 그 작품을 가지고 수많은 과학경시대회에 출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니 김 입학사정관은 “오로지 명문대에 매달려 터무니없는 능력으로 전국 대회에 수상을 목적으로 무모하게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학생들은 상만을 목표로

하여 도전했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정신적인 상처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정관은 “만약 이런 대회에서 재능을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면 입학지원서의 에세이나 추가원서에 논문을 써서 그들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항상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경험을 부모들이 만들어주어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가 스스로 그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학자금 무료 설명회

학자금 세미나 안내

2월 29일 (수)
오후 2시 / 오후 6시 30분

3월 3일 (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Top College Pro 사무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같은 시간에
Workshop을 합니다
장소가 협소하니
미리 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등학교 (10,11,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

비싼, 대학 학자금 (공립대학 년 약 \$30,000 내외, 사립대학 년 약 \$60,000 정도) 때문에 걱정만 하지 마시고, 미리 대처해서 잘 준비하시면 적법하게 많은 금액을 무상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미리 미리 대처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적절한 Planning이 필수적입니다. 세미나에 오셔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1. E.F.C. (가족 부담금)를 산출 해보고, 더 많은 학자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며
 2. 자녀분이 원하는 대학들의 Cost of Attendance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가족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아 볼 수 있으며
 3. FAFSA, CSS Profile, IDOC 등의 각종 서식들의 Filing을 도와 드립니다
-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TOP COLLEGE PRO
Student Financial Aid
email:topcollegepro@gmail.com

213.258.9230
714.739.5500

6481 Orangethorpe #2, Buena Park, CA 90620